



2003, wa wa 청소년가요제

잠시 공부 잊고

'와와' 소리 질러봐!

7월 26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청소년수련관내 청소년전용극장. 노란색으로 물을 드린 머리에 장신구가 주렁주렁 달린 무대복장을 입은 몇몇의 사람들이 기다. 키보드 등 악기 연습에 한창이다. 한편에서는 친구들의 연습 모습을 디지털카메라에 담느라 분주하다. 이들은 모두 양천구 관내 중·고등학교생으로 '2003년 wa wa 청소년 가요제'에 출전한 12개팀의 참가자들.

12개팀 참가, 리허설부터 후끈

진명여고 '진품명품' 팀 대상

리허설이 있다는 장내 안내방송을 듣고 있는 한강전자공예고 'Questions' 팀. 기타 박건우(3년), 드럼 송화선(2년), 베이스 김창인(3년)이 각자의 악기의 소리를 점검한다. 보컬 박강준(3년)은 마이크 테스트를 하며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는 듯 심호흡을 한다. 이번 가요제를 위해 방학동안 매일 정오부터 밤 10시까지 연습을 했지만 떨리는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 정각 5시 신곡과 '천하무적' 팀의 연주

를 시작으로 된 가요제. 오지오스본의 'I don't want to change the world' 가 연주되자 극장 안은 천둥같은 함성으로 가득했다. 비록 학교공부 관계로 연습을 많이 못해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가요제에 참가한 12개 팀은 최선을 다해 자신이 평소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날 가요제에서는 진명여고 밴드 동아리 '진품명품'이 영예의 대상을, 한강전자공예고의 'Questions'이 은상을, 금곡여고 음미영(2년)이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 딸아이의 공연을 보러 가족들과 함께 가요제를 찾은 정민호(목동 거주·49)씨는 "평소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가 안 쓰러기 까지 했는데 방학을 맞아 학교공부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열심히 하는 딸아이의 모습이 감동했다"며 "오늘따라 딸아이가 무척 자랑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대불전 40년, 동문 찾기 캠페인

공동주관: 대불련 총동문회·대불련·현대불교신문사

탐방: 이화여대 불교학생회

“작지만 당당함으로 뭉쳤어요”



◇'이불회로 오세요' 이화여대 불교학생회들이 7월 24일 학생회관 5층 동아리 방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원, 한재연, 임지현, 이보라미(회장), 김선미, 강신재, 최경화, 이은정 학생. 사진=박재환 기자

글모음 '야단법석' 이불회의 역사

동문의 밤 통해 선·후배 관계 돈독히

개신교계 대학안에 '작은 불교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대 불교학생회를 찾은 것은 7월 24일. 5명 남짓 되는 학생회실은 법당이기보다는 '동네 사랑방'에 가깝다. "학교에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뿐이에요. 기자님은 이런 행복함을 모르실거예요. 면발치에서 신발만 봐도 누가 왔는지 알 수 우리들만의 경지. 만기세요?"

지 꽤 있고 있는 이불인(梨佛人)들. 이처럼 두터운 법우애는 어디서 나왔을까? 지난 68년 창립이후 내려온 '야단법석'이란 글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수만 50여권이 넘는다. "야단법석은 이불회의 역사입니다. 선배들의 이야기와 고민들이 고스란히 담겨있죠. 센터멘탈한 단상, 선승들의 법문, 글씨체, 심지어 삽화에서도 이불인임을 느낍니다." '뽕뽕(2000 학년)' 지현이(정의과)가 이렇게 말한다. 이불회의 남다른 점은 매년 11월에 여

는 '창립제'에서도 엿볼 수 있다. 1·2부 나눠 열리는 창립제에서 압권은 전통과 불교를 접목해 마련되는 세미나. 그간 다른 주제만 '불교의 여성관', '티베트 불교' 등 다양하다. 자랑거리는 또 있다. 올 3월에 동문초청의 밤을 열었다. 이름 하여 'home coming day'. 이불인들이 선·후배 사랑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자리였다.

신행활동도 열심이다.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정기법회를 꾸준히 열고 있다. 지도법사 서울 신림동 마하보리사 주지 자명 스님에게서 법문을 듣는다.

이보라미(02학년·국문과) 제36대 이불회장은 "언제나 당당한 이불인이고자 합니다. 불교를 사랑하고 아끼는 청년 불자들이 너무도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대불련 후원회원 됩시다

불자학생들을 돕고, 대학생 포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자 및 동문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참여방법: 일시 후원 - 1구좌(1만원 이상) / 정기 후원 - 월1구좌 자동이체

▶문의: 한국대학불교연합회 (02)732-0239, 739-0913

▶계좌번호: 국민은행 023-01-0565993, 농협 053-01-252868, 조흥은행 390-01-071917 (예금주: 한국대학불교연합회)

후원금 배신 분



▲구룡사 주지 정우 스님(사진) 100구좌 ▲태고종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 변형 스님 10구좌 ▲장법종 홍우홍, 홍종표 5구좌 ▲이재욱, 유영애, 이은정, 송충근 3구좌 ▲이수경, 조영숙 1구좌.

7월 30일 현재 총 337구좌

총동문회로 연락주세요

대불련 활동 당시의 소중한 법우나 소중한 가르침을 받았던 지도법사님. 그러는 동문과 은사를 찾고 싶으신 분은 간단한 사연과 연락처를 담아 본지나 대불련 총동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지와 총동문회가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동원해 그러한 동문과 은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www.buddhanews.com
대불련 총동문회
www.daebul.or.kr

※기사삽입 '2003 불의 해 캠페인'과 '명각비디오 파일'입니다

Interview

청소년 '끼' 발산 공간으로 활용

목동청소년수련관장 경륜 스님



"청소년가요제는 영상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지난 해부터 시작된 특색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열린 목동청소년

수련관 운영자문위원회의에서 제 6대 관장으로 재 선임된 경륜스님(사진)은 "특화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연임소감을 밝혔다. 보다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스님은 수련관 2층을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도 하고 자신의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 스님은 또 수련관 직원들의 복지향상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자랑스런 동문들



지난 68년도에 출범한 이대 불교학생회는 35년간 배출한 동문만 1천5백여명에 달한다. 또 지난 70년에 이불총동문회가 결성돼, 불교학생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동문들의 활약은 대단하다. 이인혜(80학년·의류지물학과) 동문은 동국영역에

이불회 창립을 주도한 초대회장 이현정 동문(67학년·가정관리학과·사진 왼쪽)을 비롯해 백경임(69학년·가정관리학과·사진 오른쪽) 동문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가정교육과 교수로, 안

배출 동문, 1천5백여명
70년 이불 총동문회 결성

승진(71학년·영역교육학과) 동문은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동문들의 활약은 대단하다. 이인혜(80학년·의류지물학과) 동문은 동국영역에

서 10년 넘게 역경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민정희(86학년·물리학과) 동문은 참여불교제가연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밤은길 사바타 센터

경전의 이 미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월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02) 396-2736 · HP 016) 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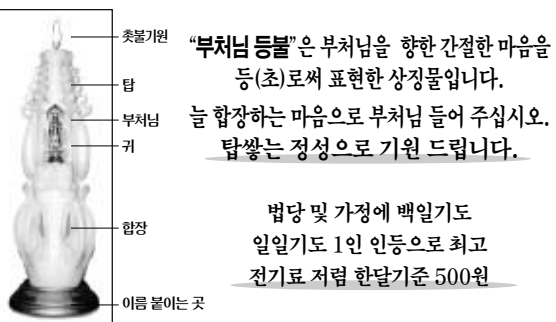
전하주시는 본회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총로구 평창동 45번지 02) 396-2736 · HP 016) 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부처님 등불" 수공예 양초

귀의 상보 하옵니다. 기도 도량에 수행정진하시는 스님 불자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가 단편서 발생되는 문제점 회자위험 및 그물음과 미세한 먼지로 인하여 건강을 걱정 하시는 많은 분들을 정하면서 이런 점들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수공예 양초를 이용한 전기 촛불을 개발 하였습니다. 특히 조각 모양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고안 되어 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하였습니다. 스님과 불자님 이제는 안심하시고 늘 24시간 "부처님 등불"을 밝혀서 소원 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 ◆부처님 등불 특징: 안정성과 그물음이 없고 30초 간격 미다 촛불이 흔들리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허 제품입니다.
- ◆색상: 흰색, 자주, 청색, 노랑, 옥색 이 다수
- ※ 원어시는 모양과 규격에 맞추어 하실경우 별도 비용 추가 됩니다.



“부처님 등불”은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등(燈)으로써 표현한 상징물입니다. 늘 합장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들어 주십시오. 탑쌓는 정성으로 기원 드립니다. 법당 및 가정에 백일기도 일일기도 1인 인등으로 최고 전기로 저렴 할당기준 500원

문의전화 및 취급점 상담 사무실 02)996-8830 / 공경 02)997-2801 전국 불교용품점에서 구입가능

중풍(뇌졸중)고혈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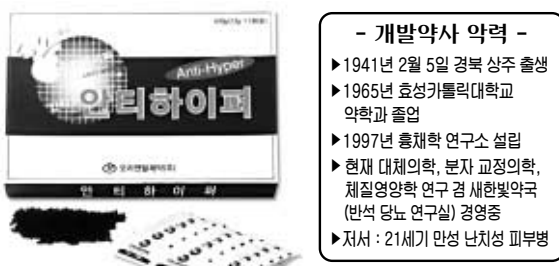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 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을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중·심장마비·협심증·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 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중(중풍), 동맥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환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股)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2달분 25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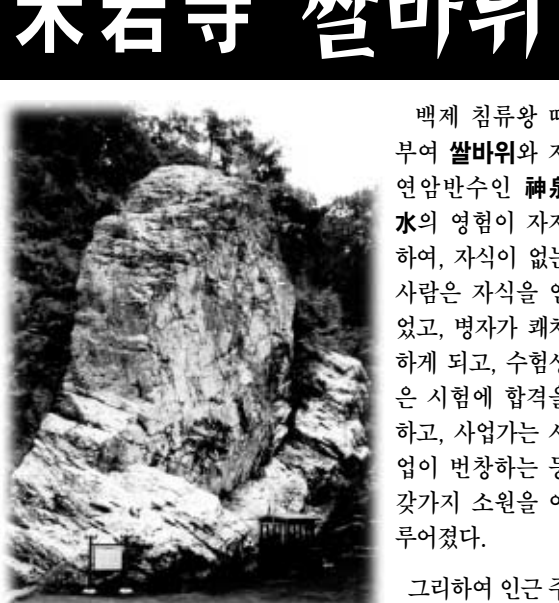
구입신청 033-255-5669 오리엔탈제약(주)

중국 티베트의 신산(神山) 수미산(mt.Kailash:6,714m)

네팔 룸비니 순례 함께 하실분을 모집합니다

1. 대상지: 중국 티베트(수미산,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롱부크, 옛 구개왕국), 네팔 포카라, 룸비니.
2. 일 시: 2003년 8월25일 부터 ~ 9월18일 까지
3. 대상자: 사부대중 (신체건강하며 순례에 이상이 없는자)
4. 동행자: 약간명
5. 준비물: 개인장비(세부적인것은 모임서 발표)
6. 문의처: (051)441-2811, 442-1814
7. 주 관: 부산등산연구소, 부산등산교실, 한국불교산악회, (주)제일항공여행사
8. 후 원: 서장(티베트)중국여행사, 네팔아시아트레킹

신비하게 소원을 이루는 기도처 米岩寺 '쌀바위'



백계 침류왕 때 부여 쌀바위와 자연암반수인 神泉水의 영험이 자자하여,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얻었고, 병자가 쾌차하게 되고,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을 하고, 사업가는 사업이 번창하는 등 갖가지 소원을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인근 주민들은 지금도 소원을 이루게 해준 미암사 쌀바위를 부처바위, 미륵바위 혹은 촛대 바위, 남근 바위 라고하며, 신비한 영험이 널리 알려져서 생로병사의 운명을 바꾸고자 전국에서 성지순례자가 많이 참여하여 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운명을 상담해 드립니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9 쌀바위 미암사 주지 석만청 합장